

2019

발간년월 2020년 6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제18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장영태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holiml@kmi.re.kr/051-797-4720)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051-797-4562)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051-797-472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6차산업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라는 과제를 강조하였다.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산업인 수산업이 급격히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이후 사업추진실태, 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사업효과 등을 진단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어촌 6차산업화 확대추진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운영실적을 분석하였고, 현장조사 등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6차산업화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추진실태분석은 사업이 추진된 9개소 마을에 사업운영 실적과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링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의 추진실태는 사업준비단계, 사업진행단계, 사업완료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진단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 실적분석은 1~2차 시범사업 대상마을 9개소 중 정량자료 확보가 가능한 5개 마을(해금강마을, 대야도마을, 안포마을, 계도마을, 전도마을)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통지표로는

---

매출액, 순이익, 방문객 수를 집계·비교하였으며, 마을별 실적지표는 매출·지출·순이익 등 연월별 실적을 활용하였다. 마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의 사업확대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어촌 6차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여 6차산업화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6차산업화 개선방안을 ① 사전준비단계, ② 사업진행단계, ③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준비단계는 리빙랩 방식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수산업 기반 6차산업화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진행단계는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과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점검관리 항목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후관리단계는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마을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

## 수산업 침체 등 어촌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필요

###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정책적 활용 제고

-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화 고도화 및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에 부합하는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추진
  - 2017년 5월 ‘6차산업화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움
  -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위해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강조함
  -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

-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어업가구는 5만 가구 선이 붕괴되었고, 어가인구수도 10만 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임
  - 어촌사회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음
  -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에 한계가 있음

###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통산업인 수산업의 침체와 어촌경제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어촌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방안 마련
  - 2014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5개소 조성 및 2016년 시범사업 5개소 조성하여 총 10개소의 시범사업 진행
  - 2018년 어촌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별로 10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및 어촌경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진행 후 사업추진실태를 분석·진단하여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추진실태는 정량적·정성적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실적 및 사업효과를 도출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점을 단계별로 도출함
- 단계별 문제점과 한계점은 6차산업화 사업 확대 시 단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중 1차 공모사업은 완공 및 운영 중이며, 2차 공모사업은 미완료 상태

- 1차 공모사업 4개소 모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공모사업 2개소가 완공되었고, 나머지 3개소는 준공 예정이거나 추진 중에 있음

표 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분		핵심자원	6차산업화 방안	비고
1차	해금강마을 (경남 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백열매</li><li>• 기름제품, 공예품</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동백열매 채취</li><li>• (2차) 공예, 기념품 생산</li><li>• (3차) 전시판매, 체험프로그램</li></ul>	완공 (2016. 10)
	대야도마을 (충남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바지락, 우럭</li><li>• 반건조 우럭</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우럭, 바지락 생산</li><li>• (2차) 우럭 가공시설 조성</li><li>•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li></ul>	완공 (2016. 5. 24)
	송호·중리마을 (전남 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복</li><li>• 전복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전복 생산</li><li>• (2차) 전복밥 제조시설</li><li>• (3차) 레스토랑 및 판매장 운영</li></ul>	완공 (2017. 1. 18)
	안포마을 (전남 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새조개 및 피조개</li><li>• 피조개 분말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새조개, 피조개 생산</li><li>• (2차) 분말 가공시설</li><li>• (3차) 레스토랑 및 민박 운영</li></ul>	완공
2차	중앙마을 (충남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태</li><li>• 조미감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감태 생산</li><li>• (2차) 조미감태 가공시설 조성</li><li>• (3차) 유통판매, 체험프로그램</li></ul>	완공
	두어마을 (전북 고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복분자, 장어</li><li>• 진액 파우치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가무락, 장어 생산</li><li>• (2차) 진액 가공시설 조성</li><li>• (3차)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li></ul>	완공 (2019. 7. 30)
	신평마을 (전남 고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역</li><li>• 건조미역(소포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미역 생산</li><li>• (2차) 건미역 가공시설 조성</li><li>• (3차) 유통판매</li></ul>	준공 예정
	계도마을 (경남 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구</li><li>• 대구 필렛 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대구 생산</li><li>• (2차) 대구 필렛 및 젓갈 가공</li><li>• (3차) 관광객 판매</li></ul>	준공 예정 (2019. 12)
	전도마을 (경남 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멸치</li><li>• 멸치 액젓</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차) 즉방멸치 생산</li><li>• (2차) 멸치액젓 가공</li><li>• (3차) 체험프로그램 운영</li></ul>	추진 중 (토지형질변경)

자료: 어촌개발지원단, 2019d, p.1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 ■ 어촌개발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성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를 위해 어촌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은 연도별 예산집행을 통해 실적행위를 체크하는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사업내용의 조성 여부 및 운영실적(매출액 및 방문객) 등 사업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함
  - 실적행위 모니터링과 사업관리 모니터링은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어촌개발지원단은 시도별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수행내용을 취합하여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함

##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실태 및 한계 발생

- 사전준비단계에서 사업주체는 특화상품 개발에 대한 인지부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한 한계 발생
  - 사전준비단계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어촌 6차산업화에 대한 사업 이해도 체크가 미비하였고, 특화상품 개발 등의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진행단계에서 사업주체는 특화상품 변경, 토지이용 변경, 사업리더의 변경 등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었고, 사업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 등의 준비가 부족했음
  -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의 진행여부를 체크할 수 없으며, 사업과정에서 갈등 등이 발생하여 사업집행 지연
  - 사업진행단계에서 사업 전·후의 기초데이터 수집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측정이 어렵고, 특화상품 개발 등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업완료단계에서 사업주체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체계적인 사업 준비의 미비로 인해 사업운영에 한계가 나타남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운영실적

###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별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확대 방향 제시

표 2. 어촌 6차산업화 운영실적 분석 및 사업 확대 방향

어촌마을	운영실적 분석	사업 확대 방향
거제 해금강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다각화 및 보타니아 방문객 증가로 연평균매출 20.9%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도 방문객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유람선사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확대</li> </ul>
태안 대야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벌체험마을 매출액 지속적 증가</li> <li>• 투자사업비 회수에 6년 5개월(10억 원)</li> <li>• 체험객 지속증가 추세</li> <li>• 음식점 운영보다 상품판매의 수익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제품의 다각화를 통한 판로확대 필요 - 체험객, 펜션 등</li> </ul>
여수 안포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물 생산 판매로 높은 매출규모를 보임</li> <li>• 원물 직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상생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li> </ul>
거제 계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객 수요 증가로 매출액 증가</li> <li>• 낚시객 지속적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낚시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li> </ul>
남해 전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공장 현대화 및 갯벌체험으로 매출액 증가</li> <li>• 체험관광객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개발 및 다각화를 통한 판로확대 필요</li> </ul>

자료: 저자 작성

## 어촌 6차산업화 개선방안 마련

### ■ 어촌 6차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 개선방향을 제시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9개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어촌주민의 역량부족, 어촌 6차산업화 대표자원 발굴 미흡, 사업추진 전문성 확보 어려움, 사업추진과정 점검 등에서 한계가 나타남
  -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직접적으로 가공상품개발, 유통판매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시범마을 대부분은 자원의 부가가치보다 원물의 판매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쉬운 방식의 6차산업화 방식을 선호하여 파급력이 크지 못함
  - 시범사업의 사업추진은 대상마을의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부족, 기초인프라 부족, 행정과 소통, 계획지연 등의 한계가 발생함
  - 사업추진과정 중 많은 변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어촌 6차산업화의 개선방향은 리빙랩을 통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사업 주체의 거버넌스 확립과 지역 상생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사전준비는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 어촌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어촌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리빙랩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역자원 발굴은 어촌마을의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향후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체는 어촌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키우고,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1차·2차·3차 산업 관련 종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류, 학습, 정책수요, 유통·판로 등을 함께 해결하는 상생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 ■ 어촌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

- 사전준비단계는 리빙랩 방식의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산업 기반 6차산업화 상품개발 유도
  - 사전준비단계의 역량강화는 자원에 대한 객관적 정보, 지역네트워크 구축, 마을주민의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지역전문가, 연구자, 마을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발굴과 상품화, 생산품의 품질향상, 시제품 개발이 필요함
  - 지역시장의 타겟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해야 함
- 사업진행단계는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점검 관리가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기반구축은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원물확보 및 보관, 상품생산, 가공 시설 규모, 판매시설 및 서비스 규모, 유통채널 등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양성, 제품의 품질관리·유지관리 시스템, 국내시장 판로개척 등 6차산업화 전문화·시스템화가 필요함
  -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자기진단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시점과 추진 이후의 사업점검, 추진전략의 이행, 조직구성 및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기존사업과 연계 필요



- 사후관리단계는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마을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마을-기업 간 협력시스템 구축, 지역인재 리더 양성, 1차·2차·3차 산업 간 점검시스템 및 성과관리 등의 지역네트워크 강화 필요
- 어촌 6차산업화는 가공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상품 품질향상, 수요자 맞춤 개발상품 다양화, 지역경제의 이익 환원 등의 지속성 담보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어촌 6차산업화는 1차산업인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기반으로 어업인 및 지역주민(공동체) 간 ① 6차산업화(융·복합)사업과 관련된 사업 발굴, ②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제품(기술)개발, ③ 제품의 사업화, ④ 판로 확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어촌 6차산업화 전진대회 등 정보교류 촉진을 통해 6차산업화 사업 발굴
- 어촌공동체 및 마을공동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6차산업화 상품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상품개발 후 상품을 이용·구매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필요
- 국내외 식품·산업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확대를 지원

### ■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간조직의 역할 강화

- 어촌 6차산업화를 성공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① 실질적 현장성이 있어 마을에 직접 참여·관여, ②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③ 중앙단위, 시도 단위, 시·군 단위 3단계 조직형태, ④ 어업인 등 행정서비스 및 계획서 마련 등 서비스 제공, ⑤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가능, ⑥ 관료화 방지 제도, ⑦ 중간조직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 ⑧ 조직규모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출발, ⑨ 중간단위 전문가 풀 제공 및 전문가 매칭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함



## ■ 어촌 6차산업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사업관리에 있어 사업계획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완료단계의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
  - 사업계획단계에서는 6차산업화 정책목표의 일치,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지방비,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의 행정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
  - 사업실행단계에서는 사업 집행의 관리, 계획대비 진척도 등을 관리하여 지연에 대한 문제진단과 대응,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참여와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성과 및 성과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제2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019.09.05.
제3호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2019.09.10.
제4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9.09.11.
제5호	항만 대기질 특별법 이행에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필요	2019.09.17.
제6호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 요구	2019.09.20.
제7호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산업계와의 협력이 관건	2019.09.23.
제8호	수산분야 블록체인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	2019.11.05.
제9호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2019.11.06.
제10호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9.11.08.
제11호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2019.11.15.
제12호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2019.11.16.
제13호	지역 해양수산 산업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19.11.17.
제14호	수산물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의 비치·보관의무 도입방안 연구	2019.11.30.
제15호	차세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 발굴 연구	2020.03.19.
제16호	부산항 타부두 환적화물 수송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2020.03.20.
제17호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2020.04.30

URL: <https://www.kmi.re.kr/>